

그리스 · 로마의 무기와 전술

- 어떻게 로마는 그리스를 물리치고
지중해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李 來 珠

육군사관학교 사학과 교수
육군 중령, 역사학 박사

이번 호부터 육사 이내주 교수님의 서양무기의 역사를 연재한다. 계획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그리스 · 로마의 무기와 전술

2. 등자, 말 그리고 기병대의 발전
3. 중세의 무기와 전술 : 기사의 무기와 갑옷
4. 보병대의 부활 : 장궁과 장창
5. 화약무기의 사용 : 소총 및 대포의 등장과 그 영향
6. 요새의 방어와 공격 : 축성술 및 공성술의 발전
7. 군사혁명의 시대 : 무기와 전술의 발전, 1560~1780
8. 나폴레옹 전쟁기 무기와 전술
9. 산업혁명과 군사기술의 발전
10. 총력전을 향한 경주, 1870~1914
11. 제1차 대전과 무기발달
12. 제2차 대전과 무기발달
13. 현대 첨단무기와 미래전쟁
14. 한국의 전통무기와 전술변화(I) : 조선시대 이전
15. 한국의 전통무기와 전술변화(II) : 조선시대 이후

1990

년대 초반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은 저서 《문명의 충돌》에서 장차 세계 정치의 핵심 동력을 '문명' 간의 갈등과 충돌로 파악하였다.

여러 가지 미사여구로 서술되어 있지만,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동양세계의 도전에 대해 서구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것이다. 즉, 비서구권의 도전이 점차로 가시화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서구인들은 적절하게 대응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단적으로 그 동안 누려오던 서방의 헤게모니가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두려움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를 움직여 가는 구심점은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측에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면, 15세기경에 이르러 서방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측을 따라잡고 추월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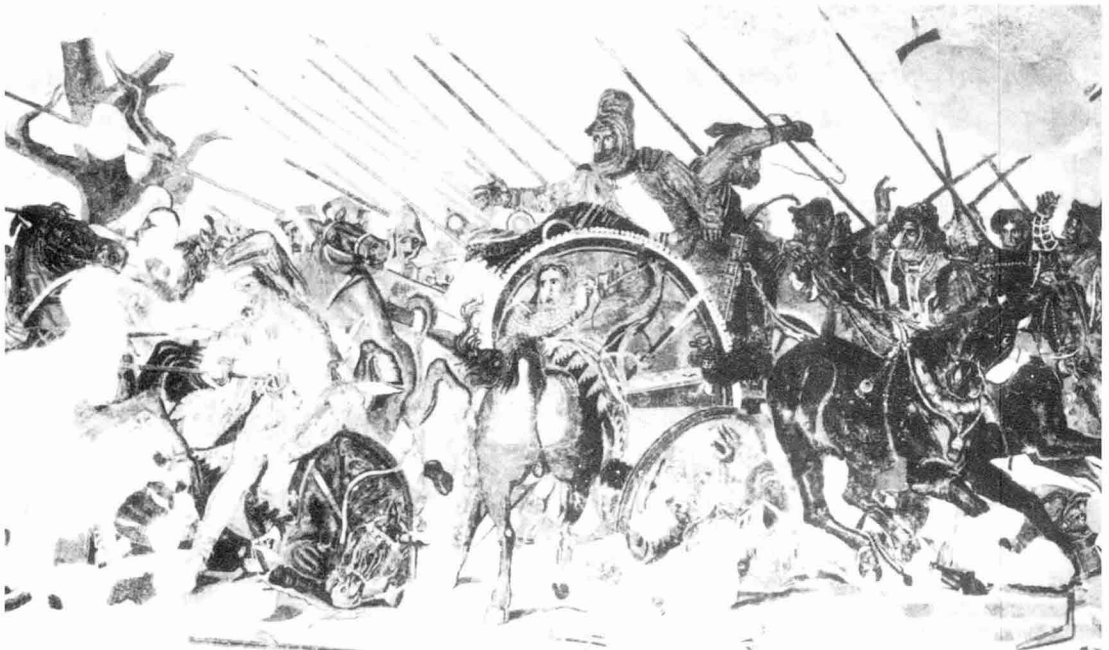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시기에 흔히 '지리상 발견'이라고 불리는 서구인들에 의한 세계로의 팽창이 본격화되었다. 한마디로 '서세동점'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후에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을 통하여 팽창의 조건들을 좀더 성숙시킨 서방측은 19세기말에 이르러서는 세계의 거의 전지역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양세계는 지구상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열거할 수 있다. 비슷한 규모를 가진 국가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한 발전, 빠른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 합리주의 정신 등이 그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서구인들이 갖고 있던 우수한 무기와 우월한 무기체계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인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

페르시아의 전차부대가 이소스에서 그리스의 기병에게 패배하는 모습



의 개발과 운용을 위해서는 합리주의적인 정신이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하지만 가시적으로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생산된 무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6세기 초반에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아스텍 문명이나 잉카문명을 정복하였을 때, 그리고 좀더 가깝게는 19세기말에 영국군이 아프리카 지역을 정복할 때, 이들은 소수의 병력으로도 수적으로 압도적인 원주민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는가? 바로 이들이 사용한 우월한 무기 덕분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 협의의 의미로 상대방에게 직접 가해력을 가할시 사용되는 도구 및 기구를 의미하는 무기는 고대로부터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온 결과였다.

물론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다”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정의하였듯이,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자신의 생존과 보호를 위해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돌칼, 돌찌르개, 돌도끼 등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인류가 무리를 지어 살기 시작한 이래로 무기를 만들어 사용해 왔기 때문에, 무기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특히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예컨대, 사정거리에 중점을 둘 경우에 장병기, 단병기로, 병종을 기준으로 할 때 보병용 무기, 기병용 무기로, 그리고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류는 처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근력을 이용하여 무기를 사용하여 왔다. 즉, 무기를 움직인 근원이 인간이나 가축의 에너지였다는 점이다. 이것이 화약이 발명된 이후에는 직접 상대방과 접하지 않고서도 전투를 치루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화약의 힘을 이용하여 투사체를 장거리까지 날려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화약무기가 미친 영향은 심대하였다. 그 이후에는 기술시대 및 하이테크 시대로 이어지면서 첨단무기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무기 그 자체의 변화만을 살펴보는 작업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무기 스스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사람의 손에 쥐어져 체계적으로 사용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별적으로보다는 전쟁에서와 같이 집단적으로 사용될 때 진정한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기가 부대 운용과 연결될 경우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위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기가 전술운용과 연계되어 고찰되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양에서 무기가 전술과 결합되어 진정으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서양문명이 그 기초를 다지는 그리스 및 로마시대였다. 바로 이 시기에 서양을 특징짓는 제반 요인들이 형성되었고, 이와 병행하여 무기도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양 무기발달의 역사를 그리스 및 로마시대로부터 살펴보려는 것이다.

서양 세계가 문명화된 모습으로 역사의 전면에서 부상하는 것은 기원전 3~4세기 경에 번성하였던 그리스 시대였다. 서양의 고대에서 최초로 문명을 이루고 지중해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던 세력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폴리스 아테네는 그리스 반도의 선도국가로서 동방의 제국 페르시아와 겨룬 세차례의 전쟁(BC 490~478)에서 승리하여 명실공히 세계의 맹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으로 이어지면서 학문과 예술을 꽃피우게 되었다. 아테네를 이어서 그리스 반도의 지배자로 등장한 마케도니아는 위대한 군사 지도자 알렉산더의 영도하

에 그리스 반도를 비롯한 소아시아 전체를 석권하게 되었다.

그러나 에게해의 패자로 군림하던 그리스의 세력은 수 차례에 걸친 내전과 혼란으로 약화되고, 그 대신에 지중해 서쪽의 이탈리아 반도에서 모습을 드러낸 로마가 웅비의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이탈리아 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라티움 평원을 거점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로마는 기원전 300년경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카르타고와 치룬 포에니 전쟁(BC 265~201)을 승리로 이끌면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본격적으로 대제국을 향한 팽창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마침내 기원전 40년경에 이르르면 위대한 군사지도자인 케사르의 지휘를 받은 로마군이 서쪽으로는 스페인으로부터 동쪽으로는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주변의 거의 전 지역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로마는 그리스를 비롯한 주변의 위협 세력들을 물리치고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사용한 무기와 이의 운용방법, 즉 무기체계 측면에서 각국이 유지하고 있던 차이가 궁극적으로는 지중해의 지배권을 둘러싼 향방을 갈라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리스와 로마 모두 중무장 보병을 주력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것의 운용과 무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고, 그것이 로마로 하여금 지중해의 장악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떻게 그리스는 동방의 강국 페르시아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에게해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그리스 군대의 강점은 팔랑스(Phalanx)라고 불린 '중무장 밀집보병대'에 있었다.

팔랑스는 중무장밀집보병으로 중무장한 보병이 개인 간격 약 90cm를 유지하면서 사각형의 대형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레이드 대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8열 횡대였다고 한다.

이는 기원전 600년경에 그리스에서 등장하여 이후에 로마의 보병군단이 출현하기 이전까지 고대세계에서 가장 가공할 위력을 발휘한 전투 형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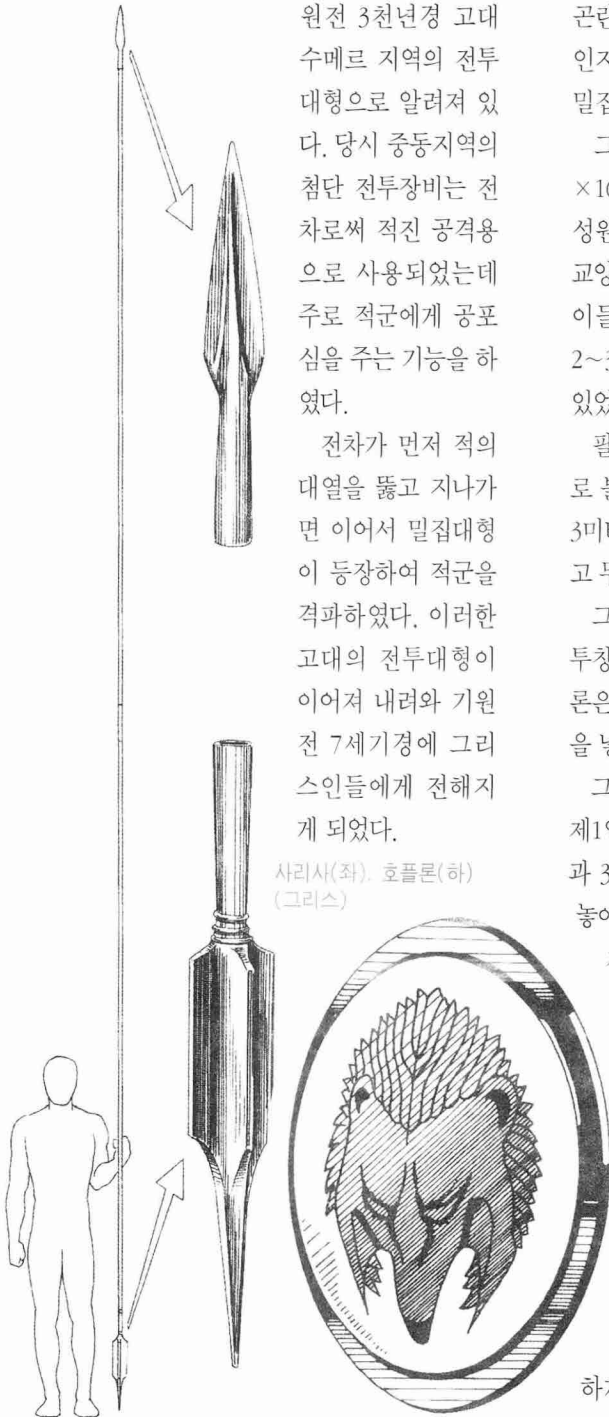


로마의 보병 코호트는 주로 두 줄로 대형을 갖추었다.

팔랑스는 원래 기원전 3천년경 고대 수메르 지역의 전투 대형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중동지역의 첨단 전투장비는 전차로써 적진 공격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주로 적군에게 공포심을 주는 기능을 하였다.

전차가 먼저 적의 대열을 뚫고 지나가면 이어서 밀집대형이 등장하여 적군을 격파하였다. 이러한 고대의 전투대형이 이어져 내려와 기원전 7세기경에 그리스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사리사(좌), 호플론(하)
(그리스)



그리스 지역은 산지가 많아서 기병이 기동하기 곤란하였고, 더욱이 당시에는 등자가 발명되기 이전 인지라 기수가 말에서 떨어지기가 쉬웠기에 기병은 밀집보병을 공격할 수가 없었다.

그리스의 팔랑스는 중무장 보병의 밀집대형(12열 × 16으로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형태)으로 그 구성원은 도시의 시민들이었다. 어느 정도의 재산과 교양을 겸비한 중상류층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창(약 2.4미터), 방패(직경 1미터, 무게 2~3kg), 단검, 흉갑, 정강이 받이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팔랑스의 주무기는 사리사로 불린 창과 호플론으로 불린 방패였다. 초기에 사리사는 그 길이가 2.5~3미터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4~5미터까지 길어지고 무게도 4~5kg에 달하게 되었다.

그 형태가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간에 사리사는 투창이라기보다는 찌르는 데 사용된 창이었다. 호플론은 원형으로 된 방어용 방패로서 방패 뒷면에 팔을 넣을 수 있는 고리가 장착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기들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제1열은 사리사를 허리높이 만큼 들어올리고 제2열과 3열의 병사들은 앞의 병사 어깨 위에 창을 올려 놓아 적군을 향해 창을 겨냥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제4열부터는 창을 수직으로 세우게 된다.

그렇게 되면 팔랑스 정면에는 수십 개의 긴 창들이 마치 가시처럼 튀어나오게 되고 적군에게 커다란 위협을 주게 된다. 그리고 호플론은 왼손에 들게 되면, 자신의 절반과 좌측 사람의 절반이 방패로 가려지게 된다.

결국에 맨 우측만 방어가 되지 않는데, 이로 인한 전력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측에는 가장 강한 병사가 배치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팔랑스는 전진하면서 상대방과 충돌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러한 팔랑스는 당시 고대세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가공할 충격력과 공격력을 발휘하면서 주변에 있던 적국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당시에 에게해 주변에서 팔랑스와 같은 신형 전투방식이 그리스에서만 가능하였는가? 다시 말해, 경쟁국가였던 페르시아는 왜 이 신형 대형을 취할 수가 없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당시 그리스 사회의 특질에 놓여 있다.

즉, 당시 그리스에서는 스스로 무장할 능력이 있는 도시의 시민들이 군인이 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구성원간에 평등성이 높아서 강한 단결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팔랑스와 같은 전투대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합된 조직력이 필수 불가결하였는데, 바로 재산을 소유한 시민들로 구성된 그리스 군대가 이에 적합하였던 것이다.

팔랑스는 대규모의 밀집대형으로 서로의 방호를 위해 뭉쳐 있기 때문에 기복이 심한 지형이나 산지 등에서는 대형이 흩어져 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소지가 있었다. 이러한 지형상의 운용이 제한되는 것, 경직된 구조로서 측·후방 방호를 위한 방법이 없는 것 등이 그리스 팔랑스가 안고 있던 문제였다.

결정적으로 정면에 대한 충격력과 돌파력은 양호하였으나, 유연성과 적응성이 부족하여 적군과의 전투 중에 직사각형 형태의 대형 중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데 성공한 마케도니아가 기원전 300년경부터 그리스 반도의 패자로 대두하게 되었다. 마케도니아에서는 필립과 그를 계승한 알렉산더에 의해 팔랑스의 중심과 무기가 보장되었다.

팔랑스를 개선하면서 대열의 수를 증가(16열×16으로 정사각형 형태)시키고 대열 내부의 개인 간격을 넓게 하여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무엇보다도 길이가 4~5 미터(재질은 서양 물푸레나무,

무게는 4~5kg)에 이르는 사리사(Sarissa)라는 장창을 채택하여 적 기병대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창의 길이가 대폭 증가된 덕분에 적군이 달려들기 전에 살상할 수 있었기에, 실제적 및 심리적으로 우세를 점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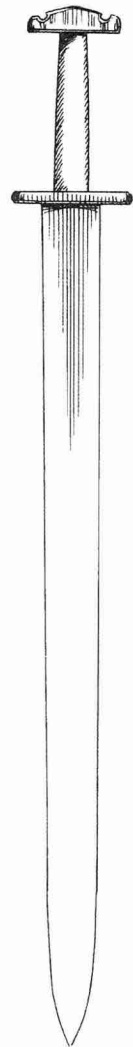
마케도니아는 중무장 보병 뿐만 아니라 경기병, 경보병, 중기병을 연합 운용하여 상호보완적인 강력한 군대를 얻을 수 있었다.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성공도 바로 이러한 군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지중해의 동쪽에 있던 에게해를 중심으로 번영을 누리던 그리스 세계는 알렉산더의 사망과 더불어 쇠퇴하고, 급기야 기원전 300년경에 이르면 지중해의 서쪽 이탈리아 반도에서 뒤늦게 성장한 로마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양측은 서로를 꺾어야만 하였고, 결국에는 충돌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는 로마의 승리로 귀착되었다. 그렇다면 로마군은 어떻게 위용을 자랑하던 그리스의 팔랑스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었는가?

로마인들은 기원전 300년경부터 창의적인 군단

클라디우스 (로마)



체제를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 대형내에서 각개 병사들의 활동 공간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

한마디로 로마군이 사용한 방진대형과 그리스 팔랑스 대형, 그리고 그에 따른 무기운용상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로마의 군대 역시 고대 서양군대의 특성인 중무장 보병을 갖고 있었지만, 사용무기와 그 운용에 있어서는 그리스와 구별되었다.

하나의 대규모 제대로 이루어져 기동성과 유연성이 크게 부족하였던 그리스 팔랑스에 비해, 로마의 군대는 약 40명 단위의 센츨리(century), 2개의 센츨리가 모인 매니플(maniple), 코호트(cohort), 그리고 10개의 코호트가 모여서 그 유명한 로마군단인 레지온(legion : 기병대 300명을 포함하여 총 4,500~5,000명으로 구성)을 이루었다.

로마군대는 이처럼 세분화된 하부조직을 중심으로 항상 유동적인 부대 운용이 가능하였다. 그리스 팔랑스와는 달리 굴곡이 있거나 산지 지형에서도 기동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개인 간격은 물론이고 제대간 간격도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부대 운용상 상당한 융통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부대 운용이 가능하였는가? 무엇보다도 로마군이 사용한 무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로마군의 핵심 무기는 글라디우스(gladius : 로마 특유의 양날 검으로 길이 60~70cm,

무게 1kg이내)와 필룸(pilum : 로마 특유의 창으로 길이 1.5~2미터, 창날의 길이 70~90cm의 금속, 무게 2kg 정도)이었다.

그리스군이 사리사라는 장창을 사용한다에 비해, 로마 보병은 필룸이라는 단창과 글라디우스라는 단검으로 무장하였던 것이다. 당시까지 통상적으로 창이나 활을 사용하던 기병대나 보병대의 보조 무기로 이용되어 온 칼이 이제는 로마군에 의해 주 공격무기로 격상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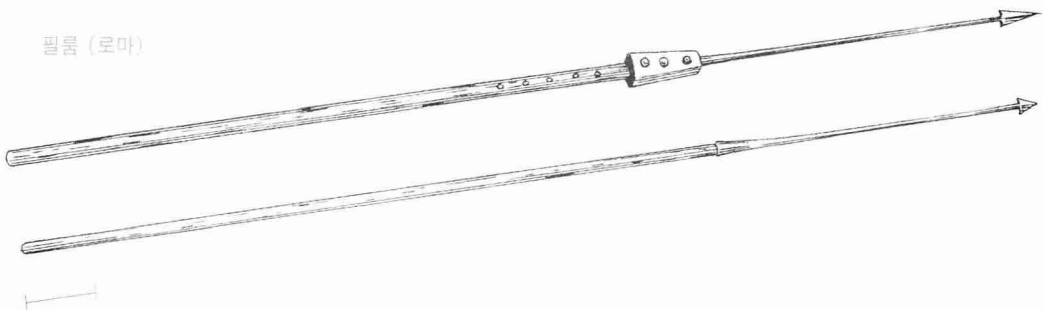
로마 보병대는 그리스 팔랑스처럼 긴창을 나열하여 고슴도치와 같은 대형을 유지하기 보다는, 전투가 시작되면 일단 필룸을 투창하여 적에게 피해를 입힌 다음에 근접하여 글라디우스로 육박전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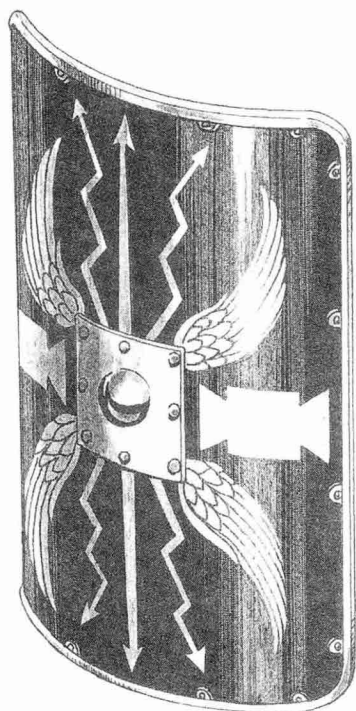
적과 근접한 상태에서는 장창이나 장검은 별다른 효용이 없었고, 글라디우스와 같이 짧고 찌르기에 용이한 칼이 효과가 있었다.

그렇다면 로마 군인들은 길이가 60cm에 불과한 글라디우스로 어떻게 길이가 거의 5m에 달하는 적군의 창병들을 상대할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스큐툼(scutum)이라 불린 로마군의 방패에서 찾을 수 있다.

로마군은 기존의 방패를 길이 1~1.2미터, 폭 60~80cm(무게 1~2kg)의 볼록한 장방형의 대형방패로 발전시켜서 전투시 몸을 가리고 글라디우스를 휘두르는 백병전의 형태로 전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방

필룸 (로마)





스큐름 (로마)

때 덕분에 로마 병사의 갑옷은 그리스 장갑보병의 갑옷에 비해 가벼울 수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무기들로 무장한 로마군이 갖고 있던 장점은 무엇인가? 먼저 상대적으로 그리스군이 안고 있던 취약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리스 팔랑스는 16열×16오의 정사각대형을 편성하여 4~5미터에 이르는 장창을 앞으로 하고 전진하여 충격력으로 승부를 내는 전투 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그리스 팔랑스는 융통성이 부족하여 개개인이나 마치 중요한 톱니바퀴의 톱니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면 그 대형이 와해된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주 무기였던 사리사는 운용하기가 너무 길어서 중장보병의 기동성을 저하시켰고, 일단 창을 상실하게 되면 백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생존수단이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비하여 로마군은 레지온이라는 방진형태를 통하여 각 병사에게 약 90cm에 달하는 활동 공간을 부여하여서 대형의 신속한 변형이 가능하였다. 로마 보병은 경보병인 벨리테스, 중보병 제1전열인 하스타티, 제2전열인 프린시페, 제3전열인 트리알리로 신분, 나이, 그리고 경력 등에 따라서 구분되었다.

적과 접촉 행동을 하는 경보병인 벨리테스가 물러나면, 중층으로 구성된 중보병들이 글라디우스 및 필룸으로 백병전을 벌이고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필요시에는 뒷열의 병사와 교대할 수 있었다. 또한 좌우에는 경기병대가 포진하고 있어서 적 정찰 및 추격작전 등이 용이하였다.

병사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는 백병전을 치루는데 매우 유용하였다. 즉, 적당한 길이의 필룸이라는 창은 단거리에서 적에게 투창시 그 위력이 상당히 팔랑스와 같은 고정된 대형을 형성해서 전술을 구사하는 그리스군의 전열을 흐트러뜨릴 수 있었다.

또한 필룸은 끝이 강하지 않아서 방패에 박힐시 그대로 구부러져 그리스군의 방패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글라디우스는 비록 길이는 짧았지만, 근거리 백병전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특히 양날검의 특성상 베고 찌르는 데 유리하였다. 그리고 로마군의 방패 역시 3중의 판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것으로 로마병사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데 한 몫을 하였다.

이러한 로마의 레지온은 당대 최고의 전투력을 보여 주었고, 로마가 지중해를 제패하는 데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글라디우스 및 필룸이라는 무기와 그에 가장 적합한 전법을 무리없이 소화한 충성스러운 로마 시민군대가 있었기에 로마는 강력한 레지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애국심으로 뭉친 로마시민들은 강인한 훈련과 계율을 통해 복잡한 전법을 원활하게 수행하였고, 그리스 팔랑스에 비해 측후방이 두텁지 않았음에도 두려움 없이 전투에 임할 수 있었다. 防